

# “삼복더위에 ‘광양 미식 여행’ 어떠세요”

기력 회복·보충 숯불구이 음식 발달  
‘광양 기정떡·매실차’ 여름나기 추천  
MZ세대 입맛 매실 하이볼·아이스크림도

40℃에 육박하는 초유의 삼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기력 회복과 영양 보충에 좋은 지역의 대표 여름철 먹거리를 소개해 미식가들의 침샘을 자극하고 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백운산의 풍부한 참숯 덕분에 일찍부터 면역력 강화와 기력 보충에 좋은 숯불구이 음식이 발달했다.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장어구이 등이 대표적이다.

광양불고기는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리 석쇠에 올려 구워 먹는 음식으로 깊은 풍미와 육즙을 자랑한다. 조선시대에 ‘천하일미 마로화적, 세상에서 첫째가는 맛은 마로(광양의 옛 지명) 불고기’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감칠맛을 자랑하며, 세계인이 찾는 K-푸드로 거듭나고 있다.

광양의 젓줄인 서천면에는 광양불고기 음식점이 즐비한 광양불고기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으며 광양불고기 유래를 알 수 있는 스토리보드



등 이색 조형물도 줄지어 있다.

광양닭숯불구이 또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으로 꼽힌다. 정갈하게 손질한 토종닭을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 기름기를 줄이고 담백함을 살린 고단백·저칼로리 메뉴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숯불을 사용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름떡의 대명사인 포실포실한 광양기정떡, 만능소화제 ‘광양매실차’ 등도 맘을 많이 홀리고 면역력이



1광양불고기  
2광양닭숯불구이  
3광양매실차  
4광양기정떡

이다.

풍부한 유산균과 우수한 소화력을 자랑하는 광양기정떡은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상온에 두어도 잘 상하지 않는 여름철 대표 웰빙 식품이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4분의1을 책임지고 있는 광양 매실은 풍부한 일조량과 수량으로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고 향과 색깔이 진해 대한민국 명품으로 꾸준히 인정 받아왔다.

갈증 처방제로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실은 구연산과 유기산, 비타민이 풍부해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여름철 식중독이나 배탈 예방에도 탁월하다.

매실은 소화는 물론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까지 두루 책임지는 자연의 보약으로 매실하이볼, 매실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돼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옛 선조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삼복더위에는 허약해지기 쉬운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특별한 보양 음식을 장만해 먹었다”며 “초유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여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광양의 구이 음식과 소화 잘되는 광양기정떡, 광양매실차 등을 맛볼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광양미식여행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순천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소비쿠폰 신청 TF팀 가동·인력 배치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도

순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에게 최대 53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지급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24개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8만원부터 최대 53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순천시는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으로 3만 원을 더해 1차 지급(7월21일~9월12일)에서는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수급자 43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9월22일~10월31일)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카드사를 통한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상품권Chak 앱을 통한 순천사랑상품권 모바일·체크카드 충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순천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충전 등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11월30일까지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휴·상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돼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했다.

총사업비는 782억원으로, 국비 90%와 지방비 10%가 투입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 여수시,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내달까지 읍·면·동 설문조사도

여수시는 15일 “지난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5개 읍·면·동과 지역 버스업체를 순회해 열린 가운데 시민 1천500여명과 버스운전원 400여명 등 총 1천90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 여수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문조사지를 비치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접수된 의견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노선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고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성 복분자, 보해양조 첫 납품…10t 물량

복분자주 원료…3월 협약 성과

장성군은 “최근 복분자(사진) 10t 물량을 보해양조에 납품했다”고 15일 밝혔다.

납품에는 지역 농가 5곳이 참여했다. 1ha 규모 농지에서 수확한 복분자를 보해양조에 공급해 ‘상생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공급된 장성산 복분자는 보해양조의 대표 상품인 ‘복분자주’ 등에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복분자주’는 2019년 미국 몬테레이 국제 와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술이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장성군과 보해양조는 올해 3월 복분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계약재배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계약 재배는 장성지역 복분자 재배 농가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웰니스피플즈가



말았다.

김한중 장성 군수는 “군·기업·농업인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겠다”

며 “이번 성과가 계약재배 확대, 고부가가치작물 발굴 등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 창평면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단’ 성료

실생활 중심 집수리 기술 교육

담양군은 15일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집수리지원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집수리지원단 프로그램은 창평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매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손볼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슬로시티 교육장과 창평면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지 일대에서 총 10회 차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타일과 줄눈 ▲인테리어

필름(시트지) ▲미장·도장 기초 ▲충장 집수리 실습(미장·도장) ▲생활 위생관리 ▲가구 수리 및 생활 목공(DIY) 등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습을 통해 집수리 기술뿐 아니라 위생 관리와 가구 보수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익혔으며, 담양군은 이번 교육이 향후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연계해 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수강생은 “집을 손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었다”며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화순군, 농촌진흥분야 군민 제안 공모

화순군은 15일 “2026년도 농촌진흥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군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화순군은 매년 군민 공모를 통해 지역 농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 농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틈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인 단체(법인)·작목 생산자 단체 등으로 참여 방법은 8월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를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담당자 이메일 전송으로도 가능하다.

제안 사업 공모 대상은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 ▲환경친화형 기술 ▲부가가치 향상 ▲틈새 작물 발굴 등 농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시범 사업이면 제안이 가능하다. /화순=이병철 기자

## 구례군, 진솔한 소통 ‘백미팅’ 호응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구례군은 “최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제2차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례데이’는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 카페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 형식으로 마련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감정 노동과 반복 민원 등 민원 처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원 응대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또한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 해소를 위해 ‘마음치유 아로마테라피 클래스’를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구례군 행정의 얼굴”이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